

해외 어항개발의 필요성과 시사점*



황철민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관리본부장

I. 서론

최근 마스크 등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들을 접해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과거에 비해 매우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원전 수주 등 해외 미개척 분야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하겠으나, 이 보다는 한국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국가가 이제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도와 주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을 수산업에 대응하여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그 규모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산부문의 해외 투자에 대한 명확한 논리 부재 또는 투자 분야에 대한 다소 수동적 접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해외 수산 부문의 환경 여건은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원양진출은 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국제해양법에 따른 EEZ, 각 연안국의 TAC 설정, 쿼터관리 시스템 도입 등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또 범지구적으로는 국제기구 등의 보고서를 통해 인류의 식량위기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경우 식량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稿)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해외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해외 어항개발에 대한

* 본 고(稿)의 내용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 어항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임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수산분야의 해외 원조 대상국 선정 고려요인을 바탕으로 일련의 수원국 범위를 정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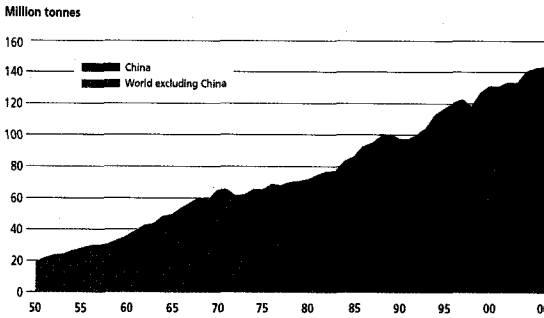
II. 해외 어항개발의 필요성

1. 국내·외 수산물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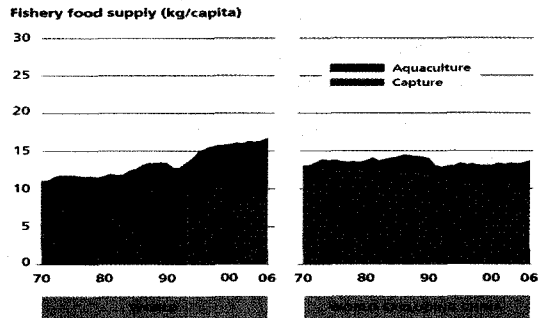
지난 5~60년간 세계의 어선어업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1950년 2,000만 톤이 채 되지 못한 어선어업 생산량은 2006년에는 1억 4,000만 톤으로 7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중 중국의 생산량을 제외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 8,000~8,500톤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소비의 경우도 양식어업의 생산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어선어업의 수산물 소비량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정된 수산자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수산 식량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세계 어선어업 생산량 추이〉



〈수산식량 소비 중 양식어업과 어선어업 비교〉



자료 :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08」, FAO

〈그림 1〉 세계 어선어업 생산 및 소비 추이

한편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¹⁾. 이는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산물 소비량은 2004년 390만 톤 수준에서 2008년에는 46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식수산물 생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환율이 높게 형성된 2008년을 제외하고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향후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향후 수산식량 확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수산물 수급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 동물성단백질의 절반가량을 수산물에 의존하는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에서의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량은 일본과 함께 매우 많은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수산물 연도별 수급표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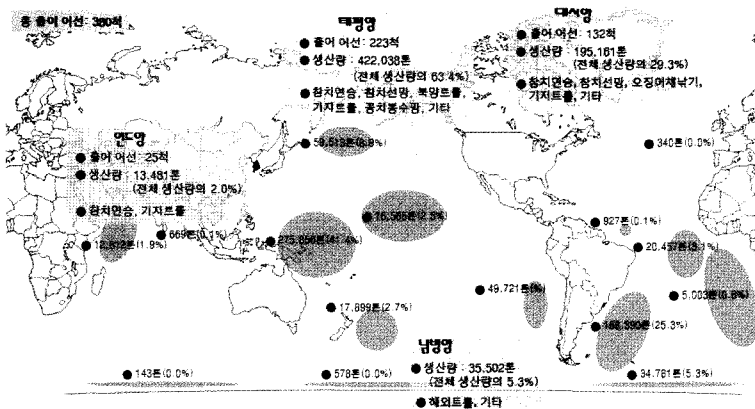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 급	소계	4,299,416	4,522,288	5,048,401	5,379,161	5,170,043
	국내생산량	2,519,101	2,714,050	3,032,116	3,274,823	3,363,268
	원양생산량	499,400	552,096	639,184	712,832	666,182
	수입량	1,280,915	1,256,142	1,377,101	1,391,506	1,140,593
수 요	소계	4,299,416	4,522,288	5,048,401	5,379,161	5,170,043
	국내소비량	3,892,981	4,110,410	4,680,903	4,843,152	4,587,582
	수출량	406,435	411,878	367,498	536,009	582,461

주: 공급 부분의 경우 원양생산량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자료: '어업생산통계' 통계청, '수산물수출입통계' 농림수산식품부

2. 우리나라 원양어업 동향

지난 5~60년간의 수산업 발전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수산업 발전 초기 원양어업은 주요한 외화 획득 원(原)이었으며, 현재에도 수산물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 380척의 어선이 활발히 조업 중이며, 약 68만 톤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양별로는 태평양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약 70% 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어어선 수 223척, 생산량은 42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태를 주축으로 하는 북양어장과 참치를 중심으로 하는 남태평양 어장으로 구분된다. 대서양의 경우 트롤을 중심으로 오징어와 참치 어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32척의 어선이 19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양에는 25척이 트롤을 중심으로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 「2009년 원양산업 통계연보」, 한국원양산업협회

〈그림 2〉 우리나라의 대양별 원양어선 출어 현황 및 생산동향(2008년 기준)

3. 해외 투자 인식도 조사

수산 기업 또는 단체의 인식도와 참여의지 등은 우리나라의 해외 어항개발 사업 또는 지원 사업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 어항개발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인식도'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어항개발 |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88개 원양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설문에 응한 20개 업체가 응답하였고, 설문조사 방법은 전화를 활용한 심층 면담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으로는 보급·선박 수리시설 부족과 어선접안 불편이 각각 35.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행정규제(16.2%), 사회경제 불안(8.1%), 상대적 차별(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7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매우 필요'라는 응답이 57.9% 달했다. 필요한 시설로는 어선수리소와 하역시설이 각각 30.6%씩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보급, 가공, 배후부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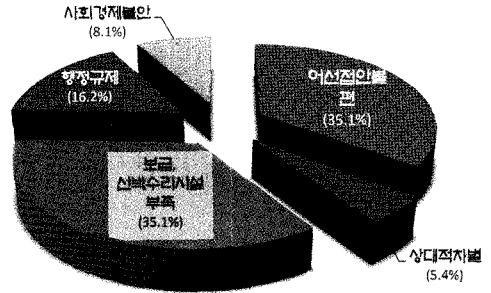
한편 최근 조업어장의 이동 등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부 대서양어장의 경우 기존 조업기지에서 어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동 간 유류비가 증가하고, 어선수리시설 등이 부족하여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러한 인식도 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들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진출 국가의 수산 인프라 시설 부족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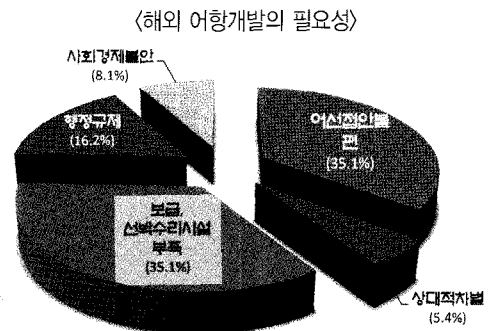
III. 공적개발원조 검토

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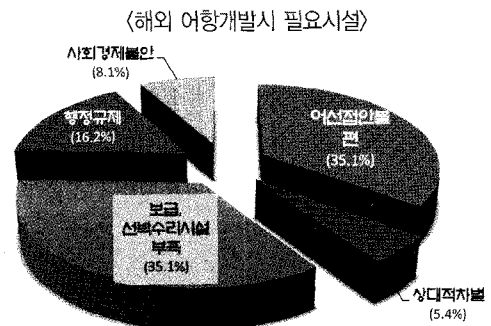
해외 어항개발은 우리나라 해외원양어업 진출국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적



〈그림 3〉 해외 진출기업의 애로점



〈해외 어항개발의 필요성〉



〈해외 어항개발시 필요시설〉

〈그림 4〉 해외 어항개발의 필요성 및 필요시설

2) 2009년 11월 ~ 12월에 있었던 대상국가 현지조사 결과임.

원조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양자 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되는데 해외 어항개발 사업의 경우 양자간 원조에 해당한다.

양자간 원조는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뉘는데,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서 집행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 발전 지원,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2008년말 까지 세계 45개 개발도상국의 200개 개발 사업에 대해 약 4조 7천 6백억 원의 원조자금을 지원하였다. 본 고(稿)에서 논의 중인 해외 어항개발의 경우 그 규모와 성격상 바로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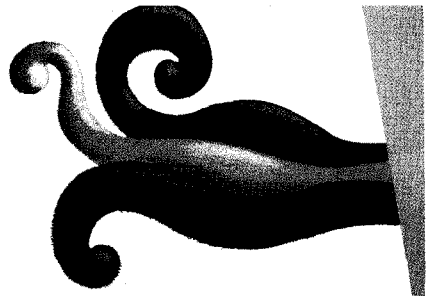
〈표 2〉 우리나라 ODA 운영 체계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원조	무상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공급 / 현금공여 • 프로젝트형 사업 /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통상부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UN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표 3〉 국가 분류 현황 (2007년 GNI 기준)

국가 분류 기준		표준 지원 조건	
그룹	분류 기준	구분	내용
I	UN 분류 최빈국	융자한도	총사업비용범위 내(단, 최빈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언타이드 차관은 85% 이내)
II	최빈국을 제외한 1인당 GNI 935 달러 이하 국가	이자율	연 0.01~2.5%
		상환기간	40년 이내
III	1인당 GNI 936~1,785달러 국가	거치기간	15년 이내
		원금 상환 방법	연 2회 정기 분할
IV	1인당 GNI 1,786~3,705달러 국가	이자 징수 방법	매 6개월 후치
		표시통화	원화
V	1인당 GNI 3,706~6,465달러 국가 (V 그룹 국가에 대하여는 타이드 원조자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채권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 : 면제 •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개발금융 기구의 지급보증

* 표준지원조건의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와 상환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어항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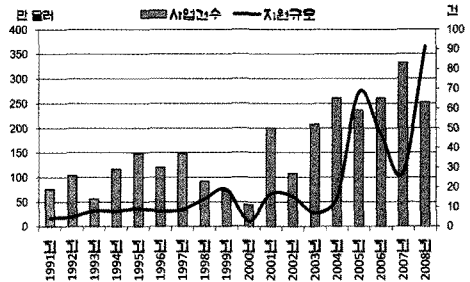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은 표준지원조건에 따라 국가그룹별로 금리 및 상환조건 등이 달리 적용되는데, 그 현황은 위의 표와 같다.

2.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공적원조 실적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약 3.7백만 달러 규모로 전체 ODA 지원규모 중 약 0.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他)산업 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수산분야의 ODA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상원조(EDCF) 중 수산업분야에 지원된 사업은 1998년에 행해진 앙골라에 대한 어선건조사업 단 1건(107억)에 불과하여 결국 수산분야 ODA는 대부분 KOICA가 추진하는 무상원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내용면에서도 인프라 구축과 같은 실제적이고, 규모화된 지원보다는 전문가 파견, 해외 연수생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적지원 정책은 해외 어항개발과 같은 수혜국에 직접적인 투자가 유상원조(EDCF)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업의 추진에 다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연도별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지원 변화 추이

IV. 해외 지원 대상 국가 검토

1. 검토 고려 요인

어항개발 수원국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원양업체의 진출 및 조업국가, 세계은행의 국가 분류 등은 가장 근원적 고려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대상국의 수산현황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국가별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조업척수 및 입어척수, 국가별 어업협정 및 민간 투자유치의 보장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실적, 어항개발 사업 추진 강·약점 분석 등이 순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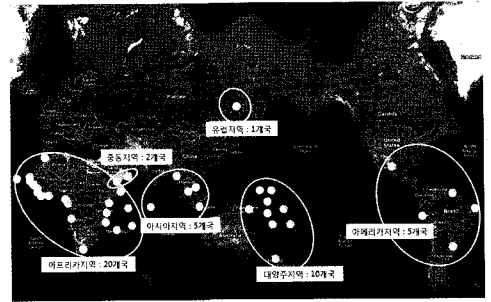
2. 해외 지원 대상 국가 검토 결과

해외 지원대상국은 우리나라의 원양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43개국으로 한정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들 이외의 국가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는 KOICA 통합원조관리시스템(KOMIS)를 기초로 KOICA 원조목적코드 중 31310(어업정책/행정/관리), 31320(어업개발), 31381(어업교육 및 훈련), 31382(어업연구), 31391(수산물 유통지원), 32161(농수산물 가공업)만을 수산분야 ODA로 간주하여 추출한 결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토 기준을 첫째,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등급 중 I~III등급까지 국가, 둘째, 수출입은행에서 EDCF 유상차관 지원 가능 국가, 셋째, 기존 조업기지 및 원양 업체의 어항개발 신설 희망 국가 등으로 삼았다.

이러한 요인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31개국이 검토되었으며,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어항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조업기지 및 입어국가 43개 국가 분포현황

(표 4) 어항개발 수원국 대상 검토 결과

구 분	대상 국가
대 양 주	솔로몬,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마셜군도, 피지(6개국)
아메리카	수리남, 우루과이(2개국)
아 시 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4개국)
중 동	오만, 예멘(2개국)
아프리카	기니아, 기니비사우, 감비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케냐,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남아공화국,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앙골라, 가봉, 카메룬, 모로코, 카보베르데(17개국)
합 계	31개국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고에서는 해외 어항개발의 필요성과 지원 자금, 그리고 지원 대상 국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해외 어항개발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정된 수산자원에 기인한 수산 식량자원의 확보, 둘째,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의 확대, 셋째, 원양어업 진출기업의 활성화 및 애로점 해소가 그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해외 어항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에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지원이 무상원조 위주였다면 이제부터는 유상원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국의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 원양업체가 진출한 곳 또는 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곳이 고려되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업체가 진출한 국가 43개국을 대상으로 앞서 기술한 요인뿐만 아니라 1인당 GNI(\$), 세계은행 국가 등급, 수출입은행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솔로몬제도 등 31개국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신흥 원조공여국으로서 향후 저개발 국가 등에 많은 원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검토·선정한 국가들이 우리나라 수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사점

신흥 원조공여국으로서 수산분야의 어항건설에 대한 투자는 향후 우리나라의 수산식량 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들어 팔라우에서 개최된 PNA 8개국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 회담에서 가장 이슈화 된 것은 참치자원 관리로써 첫째, 공해조업의 금지를 통해 자원 이용국의 자원보유국 EEZ에 대한 의존을 강화, 둘째, 참치 조업어선 수 축소로 인한 참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공해조업의 금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치 조업어선 수 축소는 250척 수준에서 150척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PNA 8개국에 투자된 각국의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솔로몬에 대한 해외어항 및 투자 사업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며, 이의 실패는 자칫 남태평양 어장의 상실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서양에 진출해 있는 우리 원양어업은 어장이 점점 남쪽으로 형성되면서 기존 어업기지에서부터 거리가 늘어나 유류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어장으로 이동 및 복귀, 어선의 수리, 어획물의 운반 시 어업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동거리의 증가로 유류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라스팔마스에 위치한 어업기지를 어장과 가까운 까보베르데 또는 세네갈 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최근 유가상승과 관련하여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까보베르데와 세네갈 정부도 이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투자사업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된 단발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PNA 8개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보유국으로서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외투자 사업을 결정하는데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선정된 어항개발 수원대상국 31개국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자원보유국에 대한 기대권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어항개발 수원대상국 31개국 조사에 대한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향후 다른 분야의 해외투자에도 좋은 본보기를 남긴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해외 어항개발 또는 투자처의 지속적인 발굴은 우리나라의 직접적 국익은 물론 대외 위상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